

나라 밖서 주목 끄는 세계의 신간

국제 무기거래 뒷얘기 다룬 「병기마피아」 외

세계의 독자들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그들에게 인기를 끌며 주목을 받는 책은 어떤 것인가.

「출판저널」은 이번 호부터 세계각국의 출판계와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외 최신간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매호 고정적으로 게재될 이 '해외신간' 란은 앞으로 각 언어권별로 꾸며질 예정인데, 이번호에는 먼저 일본에서 주목을 끄는 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兵器 마피아**」(에바타 겐스케 지음, 光文社)

최근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여 국제적인 긴장감은 다소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무기에 관한 한 '요주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국제여론이 북한의 핵사찰수용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CIA국장의 발언에서도 잘 증명된다. 게이즈 미CIA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능성보다는 신형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북경, 상하이, 서울은 물론 동경까지 공격거리 안에 들어 있고 그것을 리비아, 이라크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세계평화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명을 무참하게 살상하는 무기를 생산, 수출하고 있는 것은 비단 북한뿐만은 아니다. 옛소련의 붕괴로 동서냉전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군수산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명된 인류사회에서 무기에 대한 수요는 그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갈등보다는 이제 민족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무기거래는 뒷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무기가 인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명분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거래는 비밀거래로 이뤄진다. 따라서 때때로 그 비밀거래가 밝혀져 국제적인 여론의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무기의 거래가 미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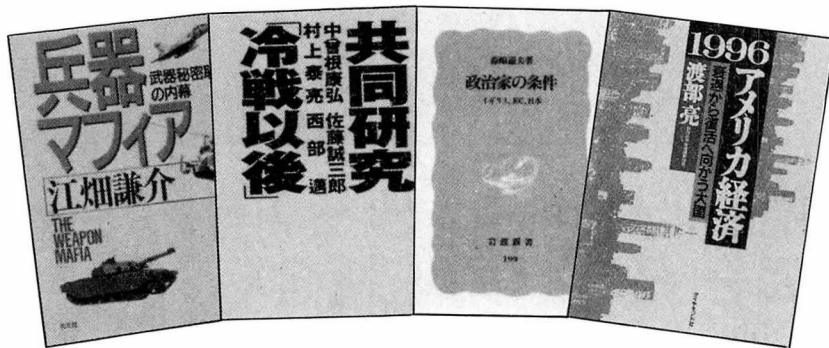
나 독일 등 서방국가의 무기가 '요주의 대상'에게 흘러들어갔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 국제적인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기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져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전모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兵器 마피아」라는 책은 이처럼 은밀하게 진행되는 무기비밀거래 내막을 파헤쳐 그 궁극증을 꽤 풀어주고 있다. 일본의 군사평론가 에바타 겐스케가 펴낸 이 책은 '兵器 마피아'라는 지하조직의 행동양식과 무기기술의 발전과 보급의 조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가하고 있다. 특히 딱딱하기 쉬운 주제를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통해 국제무기 거래무역의 뒷얘기를 흥미진진하게 전해주고 있다.

냉정한 논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그리고 흥미진진한 화제거리로 짜여 있는 이 책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기거래 현상과 그 배경을 이해하게 해준 보기 드문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국제무기거래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설명한 뒤 그것이 소위 '마피아'처럼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헤치고 있다. 이와함께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기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거래되고 있는 무기의 종류와 국제시세까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이같은 베일에 싸인 국제적인 무기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비롯 남아프리카공화국, 옛소련공화국, 프랑스, 중국 등으로 꼽고 있으며 이들 나라가 어떻게 국제 무기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일본이 최근 군사대국으로 또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자랑하는 하이테크기술이 국제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하이테크기술이 세계군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난해 이라크전쟁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미국이 아무리 첨단무기를 자랑하더라도 그 무기의 핵심기술은 일본에서 개발된 하이테크라는 사실은 국제무기 밀매상에게 일본기술에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전체적으로는 해빙무드에 젖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민족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국제적인 무기거래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있는 「兵器 마피아」는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과 파멸의 수단을 스스로 생산해내고 그것을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냉전이후**」(나카소네 야스히로 외 지음, 문예춘추)

동서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에 의해 지금 세계는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새로운 질서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냉전구조의 수익자로서 경제성장에 매진해왔던 '마을국가' 일본도 그동안 누려왔던 '우물안 개구리'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의 국가로서의 자기규정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에 대해 오늘날처럼 의문이 제기된 때는 없었다.

오늘날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강력히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일본제국처럼 또다시 군사대국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 주변국으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본내에서도 미국의 뒤만 따라다니며 눈치만 보아왔던 입장에서 탈피,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일본은 자기 위상정립을 위한 여러가지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일본내에서 내노라하는 각계 인사들은 앞다투어 일본의 진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나카소네, 사토, 무라가미, 세이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2년간에 걸친 공동토론

을 집약한 공동연구 「냉전이후」라는 책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공동집필자들은 "일본은 과연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일본인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확립될 수 있는가" 등 현재 일본이 직면해 있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자유와 질서, 개인과 국가를 상호보완적인 표리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있으며 보수주의적인 발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일본의 전통을 지각하면서 패전과 점령으로 왜곡되었던 전후 일본의 민족주의를 견제한 형태로 바로 잡고 개인의 자유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개방된 민족주의'로 나아가 냉전후 세계의 국제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 적극참가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저자들의 기본 입장은 소련의 붕괴에 의해 세계는 미국지배라는 一極구조로 변화되었지만 주요 국가간에 '힘의 균형'에 의해 세계질서가 유지되었던 19세기적인 다극적 구조로는 되어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에 있어서 국경이 무너져가고 상호존성에 비중이 높아진 탈국가모델도 상호존성의 증대가 경제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질서는 각각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주요 국가간의 협조와 역할분담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소련붕괴와 걸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던 집단적 안전보장행동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팍스 콘술시아'

(공동관리에 의한 평화)라는 개념을 도출해내고 있다.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팍스 콘솔시아'는 붕괴된 브레튼우즈체제처럼 경제적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문제,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 개발주의적 국가와 경제적 자유주의국가와의 알력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신질서는 개발주의체제를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과도적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가운데 미래의 일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가의 조건」(모리시마 미치오 지음, 岩波新서)

오늘날처럼 인류의 역사가 급변하고 있는 격동기에 세계와 인류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정치가의 책임이 막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상황이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할 경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정치경제를 이끌어갈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도 그에 걸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느닷없이 이루어진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던 정치가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와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경선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진정한 정치가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가의 등장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가가 지녀야 할 조건을 새롭게 정리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 영국 런던대학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정치가의 조건」은 영국을 이끌어온 '철의 여인' 대처 前수상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영국, EC, 일본의 정치가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주요 動因으로 작용하고 요즘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정치가의 조건을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저자는 영국을 몰아온 대처 前수상의 정치스타일은 '신념과잉의 정치'였는데 비해 가이 후 前수상의 정치는 '무소신의 정치'였다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모두 4장으로 엮여진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을 꼽는다면 대처 수상 시절의 영국, 유럽합중국, 일본을 비교하고 있으며 정치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점과 일본인들의 베버에 대한 이해를 집중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저자는 마르크스와 마르크스가 죽은 해에 탄생한 경제학자 슈페터를 대비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기질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탈함으로써 체제가 어떻게 붕괴되는가"와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 슈페터혁명에 대한 반혁명으로서의 대처리즘의 구체적인 모습의 고찰을 통해 한 정치가에 의해 국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유럽합중국에서는 기술을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요소로 간주, 특히 교통수단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영제국의 다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러시아제국의 철도에 필적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등 독특한 분석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정치가의 조건으로서 저자는 막스 베버가 주장한 心情윤리와 책임윤리라는 명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내리고 특히 밸런스 감각을 정치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에 이어 저자는 '고립되는 일본'이라고 불린 마지막 장에서는 일본이 변화하는 새시대에 걸맞는 밸런스 감각을 갖춘 정치가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헌법개정에 의한 군사력 파견을 배제해야 할 것이며 민족국가를 지양하는 수평적 통합과 보다 차원높은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 일본이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이상주의를 다시 한번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계 개편과 함께 국내외에서 강요받고 있는 일본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한가지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선거를 앞둔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치가에게 시대를 이끌어

갈 정치가가 갖춰야 할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

「1996 美國경제」(와타나베 료 지음, 다이아몬드)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대로 몰락하고 말 것인가. 최근 몇년 사이에 허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은 이제 '세계의 만형' 노릇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의문시되고 있다.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임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을 이끌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약체 이라크를 대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첨단무기를 동원, '미국의 견제함'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재정적자와 산업기술력의 저하, 부동산과 금융불황은 좀처럼 타개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경제는 옛 영광을 되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단기적이고 피상적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는 책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경제상황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어당기는 것은 이 책이 최근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일본 최대 증권회사인 노무라증권의 와타나베 투자조사부장이 펴낸 이 책은 부시 대통령의 두번째 집권-올 11월에 대통령선거에서 저자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하고 있다-이 끝나는 1996년경부터 미국경제의 기반이 다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쇠퇴에서 부활로 향한 대국'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첫째, 재정적자 등 미국의 구조적 적자가 적어지고 국방비삭감과 간접세 증대라는 조치로 적자로부터 탈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두번째로는 미국 산업계의 체질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그 같은 현상은 현저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96년에 가면 저하되던 저축율이 크게 개선되어 금융자유화의 일단락과 함께 소비자행동을 보다 신중하게 만드는 한편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보다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을 세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때쯤이면 일어나 인플레이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미 지난해 발효된 대기정화법의 개정과 미국내 산출원유의 감소 등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크게 억제될 것이며 이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소위 미국의 쌍둥이적자를 삭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미국의 앞날을 장미빛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90년대 전반에는 지난 80년말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에 사상최악의 규모로 늘어난 뒤 현재까지 미국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패이게 한 적자에서 벗어날 것이며, 90년대 후반기에는 보다 미국 국내 문제를 중시하는 안정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국내문제보다 외교에 더 신경을 써 미국경제를 망쳐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물러난 96년부터 미국이 안정성장을 구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96년 이후 미국이 세계 정치경제상 차지할 역할에 대해 저자는 역사무대 뒷편으로 사라져버린 소련의 역할까지 흡수,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세력으로 소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집안단속에 신경을 온통 집중하느라 지구환경문제와 우주과이라운드 등 전세계적인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해결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경없는 시대에 전지구촌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끌어낼 리더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흔히 분석중심의 미래 예측서가 범하기 쉬운 딱딱한 틀을 저자는 오랜 미국생활에서 체험한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섞어 재미있게 읽히게 하고 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과 비슷하게 구성된 이 책은 제 1, 2, 3악장에서 금융건축(크레딧 크런치)와 재정 모라토리움 등 미국경제의 어두운 현실의 배경을 분석하고 있으며, 제4악장은 희망에 넘치는 '중기 경기회황 도래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은 등 다소 불협화음이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은 90년대 후반에도 세계 정치경제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미국경제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는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